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241천km ²	GDP	247억 달러(2015년)
인구	39.9백만 명(2015년)	1인당 GDP	620달러(2015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ganda Shilling (USh)
대외정책	비동맹 대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3,241(2015년)

- 아프리카 동부 내륙에 위치한 우간다는 지리적으로 수단,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DR콩고와 접경하고 있음.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IMF와 World Bank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의 운영기반 구축, 꾸준한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우간다는 최대 종족인 부간다(Buganda), 이테소(Iteso), 바소가(Basoga) 등 34개 종족과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등 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무세베니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아래 비교적 양호한 사회 안정을 유지하여 왔음.
- 현 무세베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실업률, 생활비 증가는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제성장률	2.6	4.0	4.9	5.0	5.3
소비자물가상승률	14.0	4.8	4.6	5.8	6.7
재정수지 / GDP	-3.0	-4.0	-3.5	-2.9	-4.4

자료: IMF

□ 공공 인프라 투자 및 농업생산 증가로 경제성장률 회복 추세

- 우간다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2008년까지 연평균 약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세계 경기 불황,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둔화세를 보이며 2012년 성장률이 2.6%로 하락하였음.
- 이후 교통, 통신 등 각 분야에 걸친 인프라 투자 증대, 충분한 강우량에 따른 농작물 생산 증가, 민간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5년 5%대의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며, 2016년에는 5.3%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2012년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기상조건 호조 및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4~5%대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 2015년에는 우간다 Shilling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유가 하락세를 상쇄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환율 상승 추이(실링/달러): 2,600('14) → 3,241('15) → 3,492('16)

□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 등 분야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GDP 대비 3~4%대의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대선 및 총선 실시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상승한 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와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우간다는 지난 15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빈국에 머물러 있음.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관련 제도의 미비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4~15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우간다의 종합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104위로 철도(101위), 도로(105위), 항만(118위), 공항(124위) 부문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전력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전력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전기 접근률이 약 15%에 불과하는 등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으로 산업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정부는 2008년 10월부터 크루아마(Kruama) 댐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주자인 노르웨이의 Norpak Power사가 계약이행보증금 인상 문제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전력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농업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대외충격에 취약**

- 우간다는 농업 부문이 GDP의 25%,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고용인구의 72%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상조건, 농작물의 수급상황, 국제가격 등 외부적 요인의 변동에 취약함.
 - 산업별 GDP 구성(2015년): 농업 25.8%, 제조업 22.3%, 서비스업 51.9%

- 최근 지구 온난화, 엘니뇨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빈번한 가뭄, 폭우로 인해 우간다의 주요 수출산업인 커피 생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및 석유 매장량 보유

- 우간다는 철광석, 석회암 등 상업적 판매가 가능한 약 27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도 각각 25억 배럴, 0.5조 m³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06년 Albert 호수 근처의 Rift Valley에서 매장량 7~10억 배럴, 일일 생산량 3만 배럴로 추정되는 유전이 발견되어 현재 아일랜드 Tullow사, 프랑스 Total사,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공동 개발 중임.
 - 석유개발을 통해 2020년 이후부터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전개발이 완료될 경우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성과

□ 국가개발계획 추진을 통한 생활수준 개선 달성

- 우간다 정부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총예산 420억 달러 규모의 2011~15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을 시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음.
 - 동 계획기간 동안 빈곤율 감소(24.5% → 19.7%), 1인당 GDP 증대(665달러 → 788달러), 전력생산 증가(595MW → 825MW), 기대수명 증가(51.5세 → 54.5세), 중등학교 진학률 제고(47% → 73%) 등의 성과를 시현하였음.
- 나아가, 655억 달러 규모의 NDPⅡ(2016~20년)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6대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음.
 - NDPⅡ는 NDP I에 비해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평가되며 농업, 관광, 에너지, 인프라, 인적자원, 기타 등 총 6개 분야의 투자 확대를 통해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함.

□ 해외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추세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아프리카 상권에 대한 높은 접근성 등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FDI 유입액(억불): 5.4('10) → 8.9('11) → 12.0('12) → 10.9('13) → 11.5('14)

- 주요 FDI 대상 분야는 금융·부동산, 제조업, 전기·가스 등이며 정부는 향후 규제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임.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 상 수 지	-1,666	-1,804	-2,625	-2,193	-2,089
경 상 수 지 / GDP	-6.8	-7.1	-9.5	-8.9	-8.4
상 품 수 지	-2,451	-2,145	-2,360	-1,985	-1,902
수 출	2,811	2,829	2,725	2,697	2,772
수 입	5,262	4,974	5,085	4,681	4,674
외 환 보 유 액	2,644	2,912	3,394	2,819	2,819
총 외 채 잔 액	6,259	7,226	8,275	9,460	11,133
총 외 채 잔 액 / GDP	31.9	29.3	30.7	35.3	41.4
D S R	6.1	8.0	10.6	12.8	15.3

자료: IMF, EIU, OECD.

□ 석유산업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경상수지 적자 지속

- 우간다는 커피, 담배 등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기계장치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석유산업 개발을 위한 자본재 및 서비스 수입 증가로 인해 2014년까지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저유가에 따른 원유수입액 감소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쌍둥이 적자 지속 및 부채비용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감소세**

- 외환보유액은 서방 국가들의 원조와 FDI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2014년 말까지 증가하였으나, 쌍둥이 적자 지속 및 부채비용 증가로 인해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한 28.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대외차입 확대로 외채규모 증가세**

- 농업 시설,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대외차입 확대로 총외채잔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2016년 15.3%로 예상되는 등 다소 높은 수준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대선 및 총선 승리로 Museveni 대통령 집권 하의 정치안정 지속**

-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개 종족들 간의 분쟁, Idi Amin의 폭정 등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어 왔으나, 1986년 현 대통령 Yoweri Museveni의 집권 이후 정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2월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 과열 등 정국이 다소 불안하였으나, Museveni 대통령의 5선 성공 및 집권당인 국민저항운동(NRM)의 승리로 정치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야당인 민주개혁포럼(FDC)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위협 상존**

- 우간다는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바브^{*}(al-Shabab) 소탕을 위해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이들의 테러 표적이 되었음.

* 아랍어로 '젊음' 또는 '청년'을 의미하며 이슬람 근본주의를 신봉하는 테러 무장단체

- 2010년 캄팔라에서 al-Shabab의 폭탄 테러로 시민 76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동 사건의 재판 담당검사를 총격으로 살해하는 등 테러 위협이 존재함.

□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빈곤문제 가중

- 2015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우간다는 188개국 중 163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인구의 1/3이 심각한(severe) 빈곤 상태에 있으며 37.8%가 극빈선(PPP, 1일 1.25 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
 - 또한,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중·보건 시설이 열악하여 국민 10,000명 당 의사 수는 1.2명에 불과하며,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은 1,000명 당 66.1명에 달함.

3. 국제관계

□ 유럽,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 우간다는 표면적으로 비동맹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서방 실리외교를 추구하여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음.
 - EU는 우간다 최대의 교역시장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4~20년까지 11차 유럽개발기금(EDF)을 통해 교통 인프라, 식량안보 등 분야에 대해 29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 미국의 우간다 원조 금액은 연간 5억 달러 내외로 보건, 영양, 교육 등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간다가 해외 국가로부터 받는 원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동아프리카공동체 공동시장 규약 발효 등으로 역내 국가간 교류 확대 전망

- 2010년 7월 1일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공동시장규약이 발효된 이후 EAC는 6개 회원국 간의 단일 통화 도입,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16.3월 가입)

- EAC는 2013년 향후 10년간 단계적인 단일 통화 도입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 설립 및 재정정책의 통합을 계획 중임. 또한, 2014년 초에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연방헌법 초안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국제기구에 의한 수 차례 채무재조정 경험 보유

- 1981~98년 파리클럽을 통해 7차례에 걸쳐 총 7억 달러의 채무 탕감을 받은 바 있으며, IMF와 세계은행의 주요 경제개혁 프로그램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 결과 2000년 5월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이니셔티브¹⁾의 완결시점에 도달하며 20억 달러를 탕감 받았음.
- 또한, 2006년에는 IMF와 세계은행의 다자채무탕감 프로그램(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²⁾을 통해 35억 달러 규모의 외채를 탕감 받은 바 있음.

□ 외채상환태도 및 외채구조는 양호한 편

- 2015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총 3.2억 달러 (단기 0.7억 달러, 중장기 2.5억 달러)이며,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총외채 중 중장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채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1) HIPC 이니셔티브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고채무빈국을 대상으로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채무를 지속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HIPC 이니셔티브의 완결시점에 도달하면 MDRI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가능함. 해당국은 MDRI 프로그램을 통해 Decision Point에서 결정된 채무구제액 중 기 실시된 잠정채무구제를 제외한 잔여 전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V. 종합 의견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2012년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쳤으나, 이후 인프라 투자 증대, 농작물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16년에는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및 이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 2016년 대선 및 총선에서 Museveni 대통령의 5선 성공 및 집권당인 국민 저항운동(NRM)의 승리에 따라 30년 이상 이어진 장기집권이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및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각각 35.3%, 12.8%로 다소 높은 수준임.

조사역 조재동(☎02-6255-5727)
E-mail : jjd8948@koreaexim.go.kr